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의 방심도 없다”



**U-20 WORLD CUP
KOREA REP. 2017**

신태용호-포르투갈 오늘 16강전
번호·얼굴 익히고 장단점 파악
무승부 대비... 승부차기도 준비

신태용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포르투갈을 상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정신 자세를 내세웠다.

신태용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포르투갈과 16강전을 하루 앞둔 2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훈련 전 취재진과 만나 포르투갈 분석에 대해 강조했다.

신태용 감독은 “상대를 상당히 많이 분석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면서 “코치진뿐 아니라 선수들도 각자 일대일 상대를 분석하고 있다.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분석 대상은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 조별예선에서 치른 3경기다. 또 한국이 지난 1월 포르투갈 전지훈련 과정에서 포르투갈 U-20 대표팀과 치른 평가전도 귀중한 경험이다.

대표팀은 포르투갈의 경기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상대 등번호와 얼굴을 익히고 상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이제 한 경기만 잘못돼도 팀 전체가 끝난다. 1%도 방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도 우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3경기를 뛰었으니 장단점은 다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골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신태용호는 수비가 약하다고들 했지만, 이제 우리 수비가 끈끈하다고 믿을 것”이라면서 “크게 실점하지 않고 투혼을



이승우 등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29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30일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포르투갈과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발휘해 잘 막았다. 수비 조직이 한층 강화되고 정신력이 살아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승부차기 가능성에 대해 “단 1%도 방심하지 않으려 준비 중이다”면서 “90분 안에 승부를 내야겠지만, 승부차기 방식이 바뀌어 생소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 골키퍼 선방을 2위를 기록 중인 수문장 송범근(고려대)에 대해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자신감 불

어있는 상태다”면서 “열렬히 믿는다”고 신뢰를 보였다.

신태용 감독은 포르투갈의 특징에 대해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우승팀이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로, 절대 쉬운 팀이 아니다”면서 “벤피카 등 포르투갈 프로 3대 명문 팀에 속한 선수들이 다 있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회 포르투갈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최정방 공격수들이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한국에서 결정력을

못 보여줬다”면서 “그 선수들이 터지면 공격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지오구 곤사우베스는 왼쪽 윙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며 슈팅을 많이 때리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1월 평가전에서 선취골을 넣고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다”면서 “공격수들이 상대를 부수고 득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3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16강을 치른다. /연합뉴스

박성현 볼빅 챔피언십 1차타 2위

LPGA 최고 성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슈퍼 루키’로 주목받는 박성현이 새 캐디와 함께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박성현은 29일 미국 미시간주 엔아버에서 열린 LPGA 투어 볼빅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호주교포 이민지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우승자 평산산(중국)에게 단 1타가 뒤진 아쉬운 준우승이다.

올해 L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난 박성현은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십 3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 공동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는 LPGA 투어 비회원이었던 2015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대를 평정하고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박성현은 최근 캐디를 교체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박성현은 미국에 진출하면서 베테랑 캐디인 콜린 칸과 호흡을 맞췄다. 칸과 함께 한 첫 대회였던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로 상쾌한 출발을 보이는 듯했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달 초 로레나 오초아 매지플레이 대회를 끝으로 7개 대회 만에 결별했다.

“박성현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칸은 보수적인 조언을 많이 했고, 퍼트에서도 칸의 역할이 별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주 킹스밀 챔피언십부터 호흡을 맞춘 크리스티 매카몬트와는 두 번째 대회에서 준우승을 만들어내며 일단 좋은 시작을 알린 셈이다.

이번 대회에서 2라운드까지 2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던 박성현은 3라운드에서 이븐파로 제자리 걸음 한 탓에 우승을 놓쳤지만 준우승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신인상 경쟁에서도 독주 체제를 굳히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박성현은 이번 대회 공동 2위로 신인상 포인트 80점을 더해 491점이 됐다. /연합뉴스

“아우들아, 헝그리 정신으로 뛰어라”

손흥민, U-20 후배들에 조언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훈련에 합류한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후배들을 향해 직언했다.

손흥민은 29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국가대표 첫 소집훈련을 마친 뒤 U-20 대표팀에게 조언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면서 “다만 거만한 느낌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헝그리 정신을 갖고 더욱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른 이승우(FC바르셀로나 후베날A)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확실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더라”며 “부담을 갖지 말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호(FC바르셀로나B), 조영욱(고려대)의 플레이도 인상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U-20 대표팀은 3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강화 포르투갈과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선배로서 포르투갈전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지 묻는 말엔 “잉글랜드전에서 아쉽게 졌다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흥민을 포함한 국가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6월 14일 카타르와 원정으로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으로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손흥민은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잘 알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최선의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국내에서 열린 카타르와 홈경기에서 2-2로 맞선 후반 13분 결승골을 넣어 3-2 승리를 이끈 좋은 기억이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경기는 무더운 카타르에서 치른다”며 “카타르전을 위해 조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준비기간이 긴 만큼 컨디션 조절과 적응 훈련을 확실하게 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팀은 24명의 선수 중 12명이 모여 첫 훈련을 했다. 소속팀 일정으로 파주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은 제각기 다른 시기에 합류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이날 팀 훈련 대신 따로 개인 훈련을 하며 몸을 풀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카타르전 대비 첫 공식훈련

기성용·이청용 등 12명



FIFA WORLD CUP RUSSIA 2018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분선 진출의 분수령, 카타르전 대비 첫 공식 훈련을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29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밝은 분위기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이날 선수들을 오전 9시 제각기 개인차량으로 파주 NFC에 도착했다. 훈련복으로 갈아입은 선수들은 오전 10시 그라운드로나와 슈틸리케 감독의 지시사항을 들었다.

모인 선수는 총 12명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마친 손흥민(토트넘)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비롯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지동원(알라카스부르크), 카타르 리그의 한국영(알 가라파), K리그 이근호(강원), 이재성, 최철순, 김진수(이상 전북), 광대휘(서울), 김창수(울산), 조현우(대구)가 모였다.

일본 J리그 소속의 골키퍼 권순태(가시

마, 김승규(비셀 고베), 김진천(세레소 오사카)과 김민혁(사간 도스), 장현수(광저우), 홍정호(장수), 황희찬(잘츠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 황일수, 이창민(이상 제주), 남태희(레퀴야), 이명주(알아인)는 소속팀 일정으로 나중엔 합류하기로 했다.

12명의 ‘미니 선수단’으로 훈련에 임한 대표팀은 주력 골키퍼들이 참가하지 못하자 성관관대 골키퍼 최영은을 초청해 함께 훈련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성관관대 감독을 겸하고 있는 대표팀 설기현 코치가 최영은을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에 합류한 정해성 수석 코치도 눈에 띄었다. 정 코치는 선수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했다.

최영은을 포함한 13명의 선수는 슈틸리케 감독이 인터뷰하는 사이 그라운드를 뛰며 몸을 풀었다. 이후 스트레칭을 했고, 패싱 훈련과 미니 게임을 실시했다. 리그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컨디션 조절 차 이재성, 김창수, 조현우와 따로 몸을 풀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첫 훈련 분위기는 회기에 애했다. 오른 쪽 무릎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구자철(아우코스부르크)이 파주 NFC를 방문해 동료들을 응원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했다. /연합뉴스

메시 통산 4번째 ‘유러피언 골든슈’ 수상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016-2017시즌 유럽 프로축구 1부리그 정규 리그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린 선수에게 주는 ‘유러피언 골든슈(European Golden Shoe)’의 주인공으로 최종 확정됐다.

축구 전문매체 ESPN FC는 29일 “메시가 통산 4번째 ‘유러피언 골든슈’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역대 최다 수상 동률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유러피언 골든슈는 애초 프랑스 스포

츠전문지 레퀴프에서 1967~1968시즌부터 유럽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를 대상으로 시상하다가 1996-1997시즌부터는 유럽의 9개 축구전문지가 연합한 ‘유러피언 스포츠 미디어’에서 상을 주고 있다.

메시가 ‘유러피언 골든슈’를 차지한 것은 2012-2013시즌 이후 4년 만으로 통산 4번째(2009-2010시즌·2011-2012시즌·2012-2013시즌·2016-2017시즌)다. 이로써 메시는 ‘라이벌’ 호날두와 역대 최다수상 동률을 이뤘다. /연합뉴스